



FY2012 상반기, 보험모집 현황 분석 결과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에 따르면, FY2012 상반기 보험회사의 모집조직과 판매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, 보험계약유지율 및 보험설계사 정착률¹⁾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.

- 2012년 9월 말 보험회사의 총 모집조직은 45만 3,000명으로 2012년 3월 말 대비 3.6% 증가함.
- FY2012 상반기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즉시연금 판매 증가 및 농협생명 진입으로 전년동기대비 101.1% 증가한 12조 8,000억 원을 기록하였고,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에 힘입어 18.3% 증가한 33조 4,000억 원을 나타냄.
- 생명보험 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방카슈랑스(71.6%), 설계사(19.5%), 대리점(5.3%), 임직원(3.6%) 등의 순이었으며,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대리점(42.9%), 설계사(30.4%), 임직원(14.0%), 방카슈랑스(11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2012년 9월 말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은 79.6%로 3월 말과 동일하였고, 25회차는 62.4%로 3월 말 보다 0.7%p 하락하였으며,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39.8%로 3월 말(39.9%)과 비슷한 수준임.
- 2012년 4~9월 중 모집조직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 원으로 FY2011 300만 원 대비 4.3% 감소하였으며, 월평균 모집액도 2,572만 원으로 FY2011 2,630만 원 대비 2.2% 감소함.

■ 금감원은 보험계약유지율 및 보험설계사 정착률 등 모집 효율성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판매채널의 효율성 개선 및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.

- 또한, 보험계약유지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예방 등 보험계약유지율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.

(FY2012 상반기 보험모집 관련 현황 분석, 금감원, 11/22)

1) 신규등록 설계사 중 1년 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설계사 비율.